

“영화 자체가 무형의 산물...관객과의 대화, 벌써 설렌다”



6일 개막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나서는 두 감독
우광훈·문창용

6일 개막하는 '2018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의 핵심 섹션인 '아리랑 마스터스'에 초청된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의 우광훈 감독(왼쪽)과 '직지코드'의 문창용 감독. 두 감독은 "영화 자체가 무형의 산물이 아니냐"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무형유산의 키워드를 영화 속에 녹여냈다. 김홍원 기자 won@donga.com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보이지 않으면 자칫 그 소중함을 잊게 되기 때문이다. 비록 형체가 없지만 사람의 손과 손, 정신과 정신을 통해 오랜 시간 계승돼 온 무형유산도 그렇다. 어찌 보면 영화라는 장르도 무형유산의 한 갈래일 수 있다. 손에 잡히진 않지만 그 걸 보는 이의 마음과 정신을 위로하고 때론 자극하고 있어서다. 올해 5화제를 맞는 '2018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는 영화를 통해 무형유산을 향유하는 아시아 유일의 영화제다. 6일 개막해 나흘간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다. 15개국에서 초청된 27편 가운데는 '상의원', '패왕별희'처럼 친근한 장편 극영화부터 '코코'같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망라해 있다.

영화제 핵심 섹션인 '아리랑 마스터스'에 초청된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의 문창용 감독(47)과 '직지코드'의 우광훈 감독(46)을 개막을 앞두고 만났다. 최근 극장 개봉 다큐영화 가운데 돋보이는 성과를 낸 이들 영화에는 무형유산의 키워드가 녹아있다. 두 감독은 "영화가 담은 소재나 방식을 떠나 영화 자체가 무형의 산물이지 않느냐"며 "영화제에서 관객을 만나는 일은 늘 기다려지지만 이번엔 어떤 대화를 나눌지 더 궁금하다"고 했다. "답할 준비가 됐으니 많은 질문을 해 달라"는 주문도 했다.

● '앞선 세대의 정신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무형유산'

문창용 감독은 '다시 태어나도 우리'를 통해 지난해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부문 대상을 받았다. 한국영화로는 처음이다. 9년간 제작해 완성한 영화는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작은 티베트'로 불리는 인도 북부 지역 라다크에 사는 린포체(전생의 업을 이어가려고 몸을 바꿔 다시 태어난 티베트 불가의 고승) 양푸와 노스승 우르간의 여정을 담았다.

영화에는 라다크 승려들이 부처의 철학을 담은 경전을 암송하는 장면이 나온다. 라다크의 이런 독송의식은 1000년 넘게 이어진 무형유산 가운데 하나. 문창용 감독은 "촬영할 땐 '유산'이라는 키워드를 생각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사람의 넋을 전달하고, 신뢰를 나누고, 구세대의 정신과 기술을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 모두 무형유산인 것 같다"고 했다.

가나긴 작업 뒤 완성한 영화는 크고 작은 성과 속에 극장서 개봉해 관객과도 만났지만 감독은 여전히 양푸 스님과 스승 우르간을 마음에 품고 있다. 올해 초 다시 라다크를 찾아 일주일간 머물다 온 이유이기도 하다. 감독은 "카메라를 들고 무엇을 찍을지



영화 '다시 태어나도 우리'

▲ '다시 태어나도 우리' 문창용 감독

인도 라다크 승려들의 여정 담아 1000년 넘게 이어진 독송의식 압권 사람의 넋과 구세대의 정신 전달

▼ '직지코드' 우광훈 감독

구텐베르크 발명은 고려의 영향? 고려시대 금속활자의 비밀 여정 다이나믹한 서사로 호기심 자극



영화 '직지코드'

고민하지 않고 바라본 라다크의 풍경은 예전과 극명하게 달랐다"며 "14살이 된 어린 스님(양푸)과 밤새 대화를 나눴고, 우린 스님이 스무 살이 될 때 다시 영화를 찍자 약속했다"고 털어놨다.

린포체는 라다크 말로 '고귀한 존재'. 그곳 사람들은 1400년간 환생을 믿고 살아왔다. 문창용 감독은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물을 수 있지만, 척박한 땅에서 다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 마음에 린포체가 있어서"라고 답했다.

● '사람과 사람으로 전달되는 연결과 부딪힘, 무형유산'

우광훈 감독의 '직지코드'는 고려시대 금속활자의 비밀을 밝히는 여정을 다룬다. 서양에서 처음 금속활자를 발명한 구텐베르크에게 고려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설에서 출발, 프랑스와 바티칸 등 5개국 7개 도시를 찾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점의 진실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영화 '다빈치 코드' 못지않은 다이나믹한 서사를 통해 호기심을 단번에 자극하는 이 영화는 직지의 존재는 물론 불교 정신과 철학을 담은 그 책의 내용과 의미까지 주목한다.

우광훈 감독은 "직지는 우리민족이 자랑스러운 문화재로 추앙받지만 늘 기술사적인 부분만 강조돼 왔다"며 "'최초의 발명' '최초의 책' 외에 직지라는 두 글자의 의미는 주목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시 태어나도 우리'에서 린포체의 해맑은 웃음을 본 우리가 느끼는 행복, 바로 그 마음이 직지가 담은 키워드와 같다"고 했다.

감독은 그야말로 몸으로 부딪히며 '직지코드'를 완성했다. 특히 직지를 보관중인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그를 반길 리 없었다. 촬영분량 전체를 도난당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감독은 여러 성과를 낸다. 1333년 교황 요한22세가 고려왕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도 그 중 하나다. 감독은 "교황의 편지 진위가 공격받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한 건 결국 사람"이라며 "오랜 시간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달된 동서양의 연결과 부딪힘을 무형유산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영화를 전공한 우광훈 감독은 "서로의 이해가 대립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에 잘 어우러지지 않으면 점차 우리의 근본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 같다"며 "나는 영화로 무형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이번 영화제는 소중한다"고도 했다.

● 차기작 구성...기록의 여정은 계속

이들 감독은 차기작 구성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극영화를 준비하다가 '직지코드'와 만나 다큐멘터리의 세계로 들어선 우광훈 감독은 베트남 업마를 둔 다문화 가정 소재의 극영화를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시작하는 건 '직지코드' 후속편,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촬영에 돌입해 또 한 번 기나긴 여정을 시작한다.

"1편을 찍을 때 아버지용 교황청에서 한자로 된 많은 책을 봤다. 해석하지 않은 채 남겨둔 그 책 안에 고려와 유럽의 교류 흔적이 분명 남아있을 거라 생각한다."

문창용 감독은 벌써 4년째 인도네시아 스레기마을에 사는 소녀 이야기를 찍고 있다. 얼마 전에도 촬영을 하고 돌아왔다. 감독은 "스레기마을에서 꿈꾸는 아이들을 통해 우리는 무얼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goff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유재석·김은숙작가 폭우 이재민 성금 '월계수 양복점' 현우·표예진 교체중

방송인 유재석과 김은숙 작가가 폭우 피해 이재민을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3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유재석은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씨달라며 협회에 5000만원을, 김은숙 작가는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제작사인 화엔담픽처스의 윤하림 대표와 함께 3000만원을 전달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들 성금에 힘입어 8월28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 등을 지원했다. 유재석과 김은숙 작가는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선정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귀감을 사고 있다.

지난해 KBS 2TV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 출연했던 연기자 현우(33)와 표예진(26)이 교체중이다. 현우 측은 3일 "현우가 표예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 예쁘게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표예진 소속사 팬스타 컴퍼니 측도 교체 사실을 인정했다. 방송가에 따르면 두 사람은 드라마 방영 당시에는 연인사이 아니었지만, 종영 후 계속 친분을 이어가다 3월 연인으로 발전했다. 표예진은 비행기 승무원 출신으로 2015년 MBC '오자룡이 간다'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현우는 2009년 프로젝트 그룹 24/7로 가수 데뷔했다가 배우로 전업했다.

영화 '창궐', 세계 19개국 동시개봉

영화 '창궐'이 세계 4대륙 19개국에서 동시 개봉한다. 3일 해외세일즈 담당 콘텐츠 판다는 "타이완을 시작으로 필리핀 독일 영국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태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지에서 국내 개봉일로부터 2주 안에 현지 관객을 만난다"고 전했다. '창궐'은 10월 말 국내 개봉 예정으로, '아귀'의 창궐을 막고, 조선을 구하기 위한 이청(현빈)의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마이 리틀 히어로' '공조' 등을 연출한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김 감독과 현빈이 '공조'에 이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춘다.

인니언론, 슈주 AG페막무대 대서특필

인도네시아 주요 매체가 슈퍼주니어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폐막식 무대를 대서특필했다. 3일 오전 인도네시아의 대형 미디어 그룹 콤포스 그라미디어에 속한 종합지트리본 잠비를 비롯해 코란 자카르타, 수랴 등은 슈퍼주니어의 아시안게임 폐막식 무대를 1면에 게재했다. 인도네시아 매체뿐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공식 SNS를 통해 "IOC 토마스 바흐 총재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슈퍼주니어 무대가 끝난 후 팬이 되었다"고 전했다. 앞서 슈퍼주니어는 2일 폐막식 메인 무대에 유일한 한국 아티스트로 올라 피날레를 장식했다.

돈스파이크 '굴라굴라...' 업그레이드

'떡방 요정'으로 불리는 돈스파이크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굴라굴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돈스파이크는 10월6일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서울 성수동 에스팩토리 루프탑가든에서 두 번째 '굴라굴라 페스티벌'을 연다. '굴라굴라 페스티벌'은 돈스파이크가 구워주는 스테이크와 그가 만든 헝가리 전통 음식인 굴라쉬 등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고, 풍성한 음악까지 더해져 이색 페스티벌이다. 앞서 6월 열린 첫 번째 '굴라굴라 페스티벌'은 예매 시작 30초 만에 매진된 바 있다. 돈스파이크 측은 "한층 다양해진 음식과 레시피, 풍성한 음악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